DBpia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저자 (Authors)	장원
출처 (Source)	초등우리교육 , 1998.11, 78-80(3 pages)
발행처 (Publisher)	우리교육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455879
APA Style	장원 (1998).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초등우리교육, 78-80
이용정보 (Accessed)	서강대학교 163.***.1.208 2022/02/14 19:3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공부하는 습관 일곱 가지다. 이건 주로 내 경험에 바탕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첫째,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체에 변화를 준다. 삭발을 한다든지 눈썹을 민다든지 수염을 기른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새끼 손가락을 잘라 '죽으라고 공부하겠다'는 각오를 혈서로 표현하기도 한다는데 난 그것까지는 못해봤다.

둘째, 과격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표시를 낸다. 예를 들어, 책상에 날이 시퍼런 식칼을 꽂아 놓거나 천장에서 내려뜨린 올가미를 목에 거는 것이다. 이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졸음을 경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퍼렇게 날 선 식칼을 꽂아 놓아도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벼리어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리어 무디어진다.

어찌 모래성 같은 의지로 감히 난공불락의 공부대왕과 대결하며 또한 파도처럼 쉼없이 밀려오는 수마(睡魔)와 맞대결할 수 있으랴.

셋째, 남이 할 때는 안하고 남이 안할 때는 꼭 한다. 평소 수업 시간에는 공부 안하고 딴전 피우다가 꼭 설날이나 추석 등 남들 다 학교나 도서관에 가지 않을 때 책가방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선다.

이런 경우에 과연 공부가 잘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집을 나설 때는, 그리고 버스를 탈 때까지만 해도 그 의기는 사뭇 드높아 단칼에 책 한 권쯤 베어버릴 것 같지만, 막상 텅 빈 도서관으로 가보라. 덩그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 황당해 하다가 곧 허무가 엄습하고, 아! 대저 세상 산다는 것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명절에까지 도서관에 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런가, 그러다가 온갖 상념과 외로움에 시달리다 막상 집에는 가지도 못하고, 오직 명절 때나 있는 그 맛난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게 된다. 명절이라 어디 마땅히 연락할 데는 없고, 그만 못내 버감해져서 책상에 엎드리게 되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그 한칼에 베어버려야 할 책장 위에는 침만 배이고, 종국에는 입가에 흘린 침을 쓸쓸히 손으로 닦으면서 저녁 어스름에 패장처럼 돌아오게 된다. 아, 세상이란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겐 이리도 쓸쓸하고 황량한 전장이란 말인가.

넷째, 공부하는 방법이 사뭇 요란하고 게걸스럽다. 공부할 때 온갖 소도구들이 동원되는 경우이다. 형광펜은 기본이고 형형색색의 필기구와 붙임종이가 준비된다. 두꺼운 책을 잘라서 낱권으로 정성스레 제본하고 또 달력이나 비닐로 표지를 입혀야 비로소 공부가 시작된다.

막상 공부가 시작되면 자를 대가면서 중요한 부분에 반듯하게 밑줄을 치고 그것도 내용에 따라 색깔을 달리한다. 때로는 영어 단어 외운답시고 사전을 한 장, 한 장 염소처럼 뜯어먹기도 하니 이 어찌 요란하고 게걸스러운 공부법이 아닐까.

다섯째, 본공부 들어가기 전의 예비기가 길고 복잡하다. 공부할 마음이 내키면 계획표부터 먼저 짠다. 동그라미를 컴퍼스로 또는 그것이 없으면 밥그릇이나 화장품 뚜껑으로 그린 다음, 몇 시 기상 몇 시 취침 언제는 영어 언제는 수학 언제는 휴식 하면서 깔끔하게 계획표를 짠다. 계획은 세밀할수록 좋은 것이니 기상하고 나서 십분은 정신차리는 시간, 이어서 세면 시간 이십분, 화장실 가는 시간 십오분, 공부시간은 오십분, 휴식은 십분 …… 하다 보면 완벽하고도 치밀한, 스스로도 아주 만족스러운 계획표를 완성하게 된다. 다 좋은데 문제는 한 시간 정도 걸려 계획표를 짜고 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9:38(KST)

면 완전히 진이 빠져 더 이상 공부할 기운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계획표는 벽에 붙여만 놓고 또 한숨 자고 만다. 그 사이 공부는 또 저만치 멀어져 가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계획표대로 실행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다. 공부하는 시간은 놓치더라도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며, 기상 시간은 못 맞춰도 취침 시간은 앞당기거나 연장해서라도 지켜내고야 만다. 충분한 영양의 섭취와 만족할 만한 수면 없이는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계획표를 안 짤 때는 이제 서랍과 책상 정리를 한다. 이 서랍 저 서랍 다 빼놓고 바닥을 깨끗이 훔쳐내고 그 위에 달력도 새로 깔고, 연필은 연필대로 공책은 공책대로 반듯반듯하게 정리한다. 책상 위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책장의 책들도 죄다 다시 뽑아 거의 도서관 사서 수준으로 정리한다. 학교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한다. 책상 위에 낙서나 손때라도 있으면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고 지우개밥이 나오면 그것도 한 점 흘리는 것 없이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 공부하다 머리가 가렵거나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도록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한다.

여섯째, 뭐가 제대로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공부방만 있으면 잘할 텐데, 자명종이 있어야 제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환하게 비춰줄 스탠드가 있어야 하는데, 고시원에 가야 공부할 분위기가 되는데, 뭐 이런 식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가 갖춰지면 또 다른 부족한 것을 찾게 마련이다. 평생 핑계만 대다가 죽을 때도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번 생은 공부하기에는 너무 없는 것이 많았어, 다음 생엔 제대로 갖추고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공부 한번 보란 듯이 해봐야지.

일곱째, 공부하는 티를 꼭 낸다. 우선 집안 사람들에게 공부한답시고 모든 사역을 면제받는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의 시중을 들어야 하며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또한 자기 공부방부터 집안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등 공부에 관련된 것들을 붙여 놓고 온갖 티를 낸다. 잠잘 때는 책을 베개로 삼아야 하고 책가방은 대단히 튼튼하고 부피가 크다. 방송은 교육방송 아니면 아리랑 TV 또는 CNN이어야 한다. 공부하는 데 좋다는 온갖 약과 식품들을 쟁여 놓고 시시로 섭식하고 보양한다.

이제까지 열거한 일곱 가지 이외에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은 더욱 많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아닌가. 일곱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첫째, 이런저런 공부 모임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치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다. 둘째,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거나 읽고 쉬 감동하는 사람치고 그 감동을 길게 이어나가는 사람 못 봤다. 셋째, 시험치고 나서 열심히 예상점수 내는 사람치고 그 결과가 맞는 경우도 못 봤다. 넷째, 새 공책 자주 사고 책 자주 바꾸는 사람치고 끝까지 쓰는 경우를 못 봤다. 다섯째, 책상에 앉아서 하다가 내려와서 방바닥에 상 놓고 하다가 나중에는 편하게 엎드려서 하다가 결국은 잠들지 않는 사람을 나는 아직 못 봤다. 여섯째,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론과 정보에 밝은 사람치고 공부 그 자체에 밝은 사람 내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아직 못 봤다. 일곱째, 시험이 닥쳐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성적에 쪼잔하게 연연해하지 않으며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통 크고 대범한 사람들치고 그런 마음을 평생 이어가는 사람 또한 나는 못 봤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 이런 사람들치고 인간성 나쁘고 악한 사람을 아직 못 봤다. ■

장 원, 『작은것이 아름답다』(98년 9 · 10월호)에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9:38(KST)

벌은 아이들이 창피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벌다워야 한다. 또 벌 받는 아이가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는 '재미있는 벌'을 사용하는데, 이런 벌을 주게 되면 벌받는 아이 때문에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것도 피할 수 있다.

벌 받는 아이를 보는 다른 아이들이 '저 친구는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 뭐 하나 정도는 재밌게 해야 해' 또는 '우리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좋다.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재미있는 벌'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하나, 아이를 만세 시킨 다음 칠판에 손바닥을 붙이게 하고 손바닥을 그린다. 손바닥을 그리고 난 후 자기 손바닥이 칠판에서 떨어지지 않게 만세 한 자세로 서 있게 한다.

손만 번쩍 들면 10분 견디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그리 힘들지도 않으면서 엉덩이만 보이니까 쑥쓰러운 생각이 들게 된다. 또 칠판만 보니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대개 자습시간에 떠드는 아이에게 시킨다.

둘, 두 명의 아이를 서로 만세 시킨 자세에서 서로 손바닥을 붙이고 마주 서 있게 한다.

둘이 떠들거나 가볍게 싸웠을 때 시킨다. 손바닥을 맞붙이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 너무 힘이 들면 아이들은 서로 몸을 기대고 배배꼬고, 웃고 난리다. 그렇게 되면 다툴 때의 격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된다.

셋, 남자 아이의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노란 고무줄로 예쁘게 묶고, 수업하게 한다.

대개 숙제를 안 해오는 아이를 시키는데 우리반은 끝까지 숙제를 안 해오는 아이들이 꼭 남자애들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는 선생님과 약속을 어긴 남자들이야! 약속을 함부로 생각하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하고 머리를 묶어준다.

강도에 따라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그러고 있으라고 하는데, 주의사항은 주위의 친구들이 놀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웃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놀리는 사람은 같이 묶어준다고 엄포를 놓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서로 웃기만 하고 놀리지 않는다.

넷, 점심시간에 놀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한다.

아이들에게 점심시간은 황금같은 시간이다. 실컷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밖에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빼앗는 것은 매우 큰 벌이다. 나는 복도에서 뛰는 아이에게 이 벌을 주는데, '생각하는 의자'라고 이름 붙인 의자에 앉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게 한다.

아이에게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뛰지 말라는 복도에서 위험하게 혼자 뛰어 놀았으니 너의 노는 시간을 뺏는 것이다"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아이는 불만스럽지만 '쩝쩝'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

다섯, 친구들을 웃기는 재미난 몸짓 공연을 하게 한다.

수업시간에 툭툭 튀면서 까부는 아이들을 벌줄 때 사용한다. 내가 가르쳐준 율동 가운데 웃기는 율동(예를 들어 '도깨비 빤스'나 '개구리 율동' 등)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공연해야 하는데, 잘할 때까지 시킨다. 이때 조건은 친구들을 웃길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해지므로 교사가 알아서 조정해야 하는데, 대개는 너무 웃겨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하이텔 / 페다고지 / Peridot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9:38(KST)